

광고산업의 변화와 혁신 선도에 앞장설 터



무술년(戊戌年) 새해가 밝았습니다.

회원 여러분!

올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. 글로벌 금리인상과 고유가, 원화강세의 3고(高)에다 미국,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,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.

이런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부위정경(扶危定傾)의 지혜와 창의적인 노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.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인공지능, 자율주행,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는 기업은 물론 광고산업에도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우리 광고계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광고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

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,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광고효과측정,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광고시장의 선순환 성장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또한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문화 형성, 그리고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의 책임강화 등을 통한 건강한 광고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올해는 한국광고주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. 우리 협회는 1988년 설립 이후 미디어현장 제정, 방송광고사전심의·방송광고독점판매 폐지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지난 날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미래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.

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광고와 미디어도 발전할 수 있는 만큼, 우리 기업과 경제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광고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주·광고회사·매체 등 광고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.

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한국광고주협회 회장
이정치